



저희 가족을 대표하여 아내이자 사역 동역자인 모니카 모스와 함께 이 축복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World Communion of Reformed Churches, WCRC)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회장님, 총무님, 임원님, 섬기는 지도자들, 회원 교회들, 그리고 복음을 위해 때로는 거룩한 장난(Holy Mischief)과 선한 어려움을 감당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 5:13-16

13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리요? 이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단순합니다: **소금과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 우리는 우리의 맛을 잃고 있는가?
- 우리는 우리의 빛을 흐리게 하고 있는가?
- 은혜로 양념된 해방의 맛이, 복장된 거짓 신앙으로 대체되고 있는가?
- 증오의 멍멍하고 쓰디쓴 맛이, 오늘날 교회와 국가의 새로운 시민적 조리법이 되었는가?
- ‘제국의 종교’가 우리의 새로운 신학적 요리가 되었는가?

오늘날 신앙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가공된 영적 음식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양가 없는 설탕 코팅의 형태로 제공되며, 사랑은 없고, 은혜는 비어 있으며, 자비는 부족하고, 정의는 고갈되었으며, 자기 성찰이 빠진 음식입니다.

저는 이 요리가 회개하지 않는 나르시시스트들에 의해 국가적·교회적 공동체에 주요 식사로 제공되는 장면을 봅니다.

레시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오 1 작은 술
- 원한 ½ 컵
- 자기 의 3 큰 술
- 통제되지 않은 권력 56g
- 거짓과 불신을 섞은 거짓말 4리터



- 이 모든 것을 소셜미디어와 정부 부패와 섞어, 국가적 담론이라는 오븐에 넣고 만져도 뜨거울 때까지 구우세요

이 음식을 어떤 국가나 교회에 제공하면, 모든 사람들은 맛있다고 믿으며 중독되지만, 사실 그들의 영혼은 서서히 파괴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맛을 잃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빛을 흐리게 하고 있는가?

복음과 성령님의 강권, 그리고 조상들의 메아리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도덕적 분명함과 흔들림 없는 윤리적 결단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오늘날 미국과 전 세계에서 우리가 소비하는 영적 음식의 대부분은 재활용된 식민지적 퇴비처럼, 우리를 내면에서부터 생명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신학적 식단을 바꿀 용기가 없다면, 우리는 탐욕과 자기중심적 권력에 중독된, 길을 수조차 없는 비윤리적 영혼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이라는 식민지 지역의 산 위에서 설교하시는 장면을 통해, 그분의 말씀으로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 본문 말씀 속에 우리는 로마 문화에 의해 주변화된 아프로-아시아계 유대 공동체에게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흔히 산상수훈으로 불리며, 가장 연약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길리앗, 갈릴리, 이스라엘, 사마리아, 예리고에서 위로와 치유의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금욕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우리는 마태복음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이자 성경 해석자로 형상화하여 예수님을 미드라쉬의 살아있는 구현체로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주십니다:

분노,

이혼,

맹세,

보복,

기도,

정죄,

그리고 우리가 황금률이라 부르는 것을 강조하며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5장부터 7장까지는 학자들이 실용적 가르침이라 부르는 부분으로, 우리가 예수라 부르는 분의 아름답고 시적이며 축복받은 신성한 목소리를 듣는 모든 이에게 전할 명확한 교육법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 구절들은 우리의 도덕적 상상력을 불태워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가 되도록 하는 이미지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국의 그림자 아래, 땅을 빼앗긴 가운데

편협함의 그림자 아래, 식민주의의 그림자 가운데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불안하고 잔혹하며 복수심에 찬 정치 지도자들의 그림자 속에서 설교하고 가르치셨습니다. 목소리를 내는 것은 위험했고, 그렇게 강력한 말씀을 전하는 것은

Disclaimer: Official versions of all Documents are in English. The translation has been made using AI and human translator assistance, however, the emphasis is for general meaning only.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권력에 진실을 선포하는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은 두 가지 주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음식 보존이고, 다른 하나는 맛을 내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는 보존의 사역으로 부름을 받았으나,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존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존해야 할 것은 도덕적 요구, 윤리적 틀, 사랑과 정의에 대한 흔들림 없는 헌신입니다.

미국의 흑인 교회는 특히 예언적 사역(prophetic wing)의 전통을 이어 받았고 우리는 이를 보존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마틴 루터 킹 주니어, 아이다 B. 웰스, 제임스 볼드윈, 엘라 베이커의 전통을 이어 받은 우리는 모든 사람의 존엄성, 이야기, 유산, 그리고 복음의 신성한 아름다움을 보존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바로 이 순간, 아직 완전히 연합되지 않은 미국의 행정부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시작으로 역사를 지우고 수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에서는 시민권 운동 교육 금지, 교과서 내

노예제·린칭·인종분리 관련 내용 삭제, 아시아계·흑인·원주민·라티노·LGBTQ 관련 도서

금지, 인종차별주의나 백인 우월주의 용어 언급 자체를 지우려는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주제들이 비애국적이며 백인 아이들을 불쾌하게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에서는 ICE 연방 기관이 적법한 절차 없이 라티노 부모들을

추방해 자녀들과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들은 가장 취약한 이들이 목격하는 고통과 잔혹함 앞에서 침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Disclaimer: Official versions of all Documents are in English. The translation has been made using AI and human translator assistance, however, the emphasis is for general meaning only.



Gary Dorrien 박사는 『Breaking White Supremacy: Martin Luther King Jr. and the Black Social Gospel』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독특한 신학적 틀을 통해 미국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밝힙니다. 거의 모든 시민권 운동과 인권 확장 운동은 흑인 교회의 예언적 전통과 연결됩니다.

도리언 박사는 역사의 복잡성, 즉 그 축복과 잔혹함을 가르치는 것이 번영하는 민주주의를 세우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보존의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은혜와 사랑, 정의와 평화, 인내와 자비, 친절과 용서, 구속과 화해, 해방을 보존하기 위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베리 헨드릭스 박사는 최근 저서 『기독교에 맞선 기독교인들: 우익 복음주의자들이 우리의 신앙과 국가를 파괴하는 방식』에서 교회 내에 새로운 형태의 기독교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깊이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가 없는' 제국 종교의 파괴적이고 약탈적인 이기주의에 대안을 제시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보존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소금의 한 목적은 보존하는 것이고, 다른 목적은 맛을 내는 것입니다!

세계개혁교회 커뮤니티의 아름다움은 이 모임의 다양한 풍미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 각지에서 모여 교회에 다양한 풍미를 더합니다.

우리는 콩고에서 카메룬에 이르기까지

콩고에서 카메룬까지,

에티오피아에서 이집트까지,

쿠바에서 크로아티아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이탈리아까지,

Disclaimer: Official versions of all Documents are in English. The translation has been made using AI and human translator assistance, however, the emphasis is for general meaning only.



필리핀에서 포르투갈까지,
양골라에서 아메리칸 사모아까지,
호주에서 아르헨티나까지,
브라질에서 방글라데시까지,
팔레스타인에서 파키스탄까지,
한국에서 콜롬비아까지,
헝가리에서 홍콩까지,

교회는 결코 동질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단 하나의 문화, 공동체, 민족의 모습만을 본뜬 교회를 만들려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불충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양성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된 우리 세상은 다양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약 40만 종의 식물이 있습니다.

... 물고기 3만 종.

... 알려진 벌 종은 20,000종입니다.

... 개미 13,000종

... 포유류 6,600종

그리고 과일 종류만 2,000종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우리의 맛, 우리의 노래, 우리의 상황,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가져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식탁에 풍미를 더합니다!

세계개혁교회 커뮤니티는 글로벌 남반구가 함께할 때 비로소 진정한 공동체가 됩니다.

유럽과 미국 밖의 목소리가 함께할 때만 세계개혁교회 커뮤니티는 진정한 세계 커뮤니티가 됩니다.

식탁에 앉은 모두가 당신과 같다면 세계적 교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Disclaimer: Official versions of all Documents are in English. The translation has been made using AI and human translator assistance, however, the emphasis is for general meaning only.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소금'은 맛을 잃을 수 있습니다. 소금은 두 가지 방식으로 맛을 잃습니다. 하나는 희석되고, 다른 하나는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희석된 복음은 맛을 잃습니다! 가난한 이들이 더 이상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연민이 더 이상 우리가 되지 않으며, 사랑이 더 이상 중심이 되지 않고, "놀라운 은혜"가 가르쳐지지 않으며, 정의가 논의되지 않을 때, 이것이 바로 복음이 맛을 잃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강단에서 선포되지 않을 때, 복음은 맛을 잃습니다.

소금은 오염을 통해서도 짠맛을 잃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해방적인 '말씀'으로 위장한 번영 메시지에 의해 오염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개인의 번영이나 정부의 보조 기관이 되는데 초점을 맞출 때, 그것은 오염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역사가 증명하듯, 정부는 교회를 제국의 한 팔로 편입시켜 복음을 오염시키려 할 것이다. 그 제국의 '신'은 권력과 억압의 우상에 불과하다.

그리스도가 다른 것으로 대체될 때마다 우상은 높이 세워질 것이고, 이는 오염된 복음이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세상의 빛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

세상의 빛

Disclaimer: Official versions of all Documents are in English. The translation has been made using AI and human translator assistance, however, the emphasis is for general meaning only.



우리는 우리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영적인 분이 어느날 말하듯 "**이 작은 나의 빛을 나는 비추리라.**"

마무리하며, 유명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운동가 패니 루 해머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해머 여사는 미시시피 주 출신의 전 세입자 농부였습니다. 미국 남부의 억압적인 환경으로 인해 그녀는 초등학교 5학년 교육만 받았습니다. 1962년 미시시피 선플라워 카운티의 작은 교회에서 해머 여사는 젊은 청년들이 투표의 힘과 지역사회의 운명을 바꾸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조직가이자 운동가가 되라는 소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시민권 운동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운동에 참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미시시피에서 수주간 유권자 등록 활동을 벌이던 패니 루 해머는 다른 조직가들과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모두 감옥으로 끌려갔지만 해머 부인은 따로 격리되었고, 보안관 부서에 의해 구타당하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해머 여사는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며, 신의 손길이 자신의 육신을 떠나는 것을 느꼈고, 육체적으로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목격할 수 있었지만, 그 잔혹함의 고통은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영혼을 다시 몸으로 돌려보내자, 그녀는 '**이 작은 빛을 나는 비추리라...**'라는 노래를 부르며 강렬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그 순간 그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두운 곳을 비추기 위해 자신 안에 빛을 심어주셨음을 깨달았다. 몇 년 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패니 루 해머는 미시시피 출신 활동가들과 함께 전당대회장에서 서서 인종 차별이 악하고 최악된 행위라고 선언했다. 그녀는 전당대회와 국민에게 권위 있게 모든 미국인이 투표권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당시 대통령 린든 B. 존슨은 그날 아침 텔레비전을 켜자 모든 채널에 같은 흑인 여성이 전당대회장에서 국민에게 연설하는 모습을 보았다. 존슨 대통령은 충격과 분노에 사로잡혀 참모장에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원문에는 그가 사용한 표현이 있었으나 생략)... 사람을 당장 텔레비전 화면에서 치워버려!**"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기자회견**"을 소집해 전당대회장에서 진행 중이던 패니 루 해머의 연설을 중단시키려 했지만, 이미 전국의 흑인 여성들은 그녀의 연설을 들은 뒤였다. 설리치슬롬이라는 한 여성은 그날 패니 루 해머의 연설을 듣고 자신이 반드시 의회에 출마해야겠다고



고 결심했다. 그녀는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그녀의 선거 운동은 다른 유색인종 여성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오늘날까지 미국 공직에 있는 모든 유색인종 여성들은 자신의 작은 빛을 비추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미시시피 출신의 흑인 소작농에게 감사해야 한다!

오늘 우리는 우리 빛을 비추기 위해 모였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도전은 벅차고, 우리는 소금의 맛을 잃거나 빛을 가리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르심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인내하며 증언을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빛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우리가 감히 그 빛을 들고 함께 모인다면 세상을 밝히는 불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빛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우리가 감히 그 빛을 들고 함께 모인다면 세상을 밝히는 불꽃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의 빛만으로는 부족하고 홀로서는 미약하나, 내 빛이 카사브 박사의 빛과 연결되고
카사브 박사의 빛이 카렌 톰슨 박사의 빛과 연결되고
그리고 카렌 톰슨 박사의 빛이 오지현 목사의 빛과 연결되고
오 목사의 빛이 앨런 보에삭 박사의 빛과 연결되고
그리고 보에삭 박사의 빛이 피콕 목사의 빛과 연결되고
피콕 목사의 빛이 모든 사회자들의 빛과 연결되고
그리고 사회자들의 빛은 우리 회원 교회들의 빛과 연결됩니다
아프리카 회원 교회들은 아시아 교회들과 연결되고,
아시아 교회들은 카리브해 교회들과 연결되고,
카리브해의 교회들은 유럽의 교회들과 연결되고
유럽의 교회들은 라틴 아메리카의 교회들과 연결되고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의 교회들은 중동의 교회들과 연결됩니다
중동 교회들은 북미 교회들과 연결되고
북미 교회들은 태평양 교회들과 연결됩니다...

Disclaimer: Official versions of all Documents are in English. The translation has been made using AI and human translator assistance, however, the emphasis is for general meaning only.



우리는 더 이상 작은 빛이 아니라 복음을 비추고, 가난한 자에게 힘을 주며, 억압받는 자를 해방 시키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우리 지구를 축복할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길 축원합니다!

오티스 모스 목사님 기조연설에 대한 성찰

작성: J. O. Y. 만테 목사, 박사

I. 서론

1. WCRC 소속 교회로서, 오늘 우리 시대에 이렇게 강력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오티스 모스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2. 성경의 ‘소금과 빛’이라는 이미지는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3.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다양한 종과 문화를 창조하신 다양성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특히 좋습니다.
4. 우리가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 형상(Imago Dei)으로 창조된 우리의 본래 모습으로 나아가는 큰 걸음입니다. 아마도 옛 속담인 “같은 깃털을 가진 새끼리 모인다”보다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다른 깃털을 가진 새끼리도 함께 모인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 7:7-17 참고)
5. 실제로 세상의 아름다움은 ‘조화로운 다양성’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아노에서 흰 건반과 검은 건반이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진정한 조화를 만들어냅니다.
6.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보시고 ‘좋다’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이런 아름다움을 보신 것이 아닐까요? 제가 말하는 ‘조화로운 다양성’을 포함한 여러 측면에서 말입니다. (창 1:31 참고)

II. 아프리카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 — 희미한 빛과 제 맛을 잃은 소금

Disclaimer: Official versions of all Documents are in English. The translation has been made using AI and human translator assistance, however, the emphasis is for general meaning only.



1. “반그림자(penumbra)”란 불투명한 물체에 의해 드리워진 그림자 중 일부가 희미하게 빛에 닿는 영역을 말합니다. 완전한 밝은 빛도 아니고, 불투명함과 그림자, 어둠이 공존하는 영역입니다.
2. 기독교 복음이 처음 아프리카 대륙에 전해졌을 때, 그 복음은 완전하고 순수한 빛도, 맛있는 소금도 아니었습니다.
3. 복음은 노예제도, 경제적 탐욕, ‘자유’라는 이름 아래의 개인주의, 지배적 우월의식, 그리고 육체적·정신적 식민주의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4. 복음은 ‘노예 성채’의 건물 안에서도 위층에서는 예배가, 아래층에서는 노예 감옥이 존재하는 형태로 들어왔습니다. 같은 건물 안에서, 아래층에서는 고통의 비명이 울려 퍼지고 있었지만, 위층에서는 노예 주인과 그 가족들이 기도하고 성경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현상은 이른바 노예무역이 폐지된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5. 신학 이론이든 실제 예배든, 여전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래층”에서 고통의 비명을 지르고 있는 반면, 같은 “공동체 배(Communion Boat)” 안에서 다른 이들은 “위층”에서 기도하고 성경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동기를 부여하는 기도와 성경공부를 넘어, “아래층의 고통스러운 비명”을 멈추게 하는 기도와 성경공부가 필요합니다.

III. 아프리카의 신앙

1. 아프리카의 그리스도인들은 일찍부터 세상의 참된 빛과 소금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반그림자 속에서 제대로 정제되지 못한 소금을 지닌 복음의 전달자들 사이를 분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2. 우리는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공존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이는 단지 선교사들의 설교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직접 다가오시고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가 지식으로만 아는 분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도 함께하시는 분이십니다.
3. 우리의 역사 역시 흠 없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한 이들이 다른 사람을 정복하려는 사고방식, 식민주의, 패권주의, 경제적 탐욕, ‘자유’라는 이름의 개인주의, 그리고 문화적·인종적 우월의식에 물들어 있다면, 우리는 이제 역사적이며 신학적 의미를 지니신 예수님, 곧 세상의 참된 빛과 소금이신 예수님을 새롭게 알아가며 그분의 증인으로 서야 합니다.

IV. 우리의 증언 속에서 인내하기

1.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 속에서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그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복음의 이름으로 세상 곳곳에 남겨진 불순한 소금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2.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신학적·윤리적·선교적 회개를 촉구합니다.
3. 동시에 우리는 노예제, 식민주의, 가부장주의, ‘자유’라는 이름의 개인주의, 경제적 탐욕, 패권주의, 권력과 통제에 대한 욕망 등 우열 구조를 만들어내는 사회를 거부하신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예수님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며, 그분을 선포해야 합니다.

Disclaimer: Official versions of all Documents are in English. The translation has been made using AI and human translator assistance, however, the emphasis is for general meaning only.



4. 우리는 정의로운 성찬 공동체(Just Communion), 곧 우분투(Ubuntu) 정신이 살아 있는 진정한 공동체, 사랑과 정의가 우리 삶의 지침이자 핵심 가치가 되는 **참된 코이노니아(Koinonia)를 향해 끝까지 인내하며 그분의 증인으로 서야 합니다.
5. 만약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증언을 이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불의에 동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아래층에서 노예들이 울부짖는 동안 위층에서 노예주들이 기도와 성경공부를 하는 그 비극적 장면을 반복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6. 세상의 참된 빛이요 소금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참된 빛으로부터 우리의 작은 빛을 밝히고, 제 맛을 잃지 않은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7. 감사합니다.

오티스 모스 목사님의 기초연설에 대한 응답문

헤렌 조르흐드라허(Heleen Zorgdrager)

WCRC 치앙마이 회의 중에서

먼저, 이렇게 새롭고 포용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신 오티스 모스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답변은 두 내용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 땅의 소금은 누구의 것인가?
-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소금이 되지 못하게 하는가?

[프로젝트 이미지: 피터 클라에츠, 공작이 있는 정물화 (1627)]

이 땅의 소금은 누구의 것인가?

저의 나라 네덜란드는 소금과 관련된 복잡하고 아픈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과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 피터르 클래스(Pieter Claesz)의 공작 파이 정물화(1627)입니다.

현대인의 눈에는 잘 띄지 않지만, 공작 깃털로 장식된 화려한 파이 옆, 금도금된 받침 위에는 하얗고 작은 소금 결정이 조심스레 담겨 있습니다. 이런 정물화들 대부분에서 비슷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부유층의 식탁 위에 놓인 소금은 식민지 시대 소금이 맡았던 역할을 묵묵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급성장하는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소금을 필요로 했습니다. 버터, 치즈, 청어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식민지를 개척하고 향신료 및 각종 물품을 거래

Disclaimer: Official versions of all Documents are in English. The translation has been made using AI and human translator assistance, however, the emphasis is for general meaning only.



하며,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끌려온 남녀와 아이들을 대서양을 건너 옮기는 긴 여정 동안 음식을 보존하는 데에도 필수적이었습니다.

소금의 공급권을 둘러싸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소금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곧 경제적·정치적 권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네덜란드 시인 야콥 카츠(Jacob Cat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금 없이도 살 수 있지만, 소금 없이 살 수는 없다.”

네덜란드는 카보베르데의 소금섬을 착취한 뒤, 소금이 풍부한 카리브해의 보네르 섬을 정복했습니다.

그곳에서 노예들은 ‘하얀 지옥’이라 불린 소금 광장에서 일했습니다.

태양빛이 소금에 반사되어 눈이 멀었고, 극심한 건조함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유한 식탁 위의 소금이 품고 있는 진짜 이야기입니다.

식탁 주인은 아마 경건한 칼빈주의 신자였을 것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공부하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었겠지요.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이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부르신 자들이다.

우리는 전 세계에 우리의 이상과 기독교 문명을 전하고

참되고 올바르게 — 그리고 하얀 — 그리스도인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식탁 위의 소금을 자랑하던 그 남자는, 소금을 캐던 이들의 고통을 보지 못했습니다.

소유하고 지배하려는 정신에 사로잡혀, 그는 옆에 있는 동료를 위한 마음을 잃었습니다.

II.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소금이 되지 못하게 하는가

풍요로운 식탁의 후예인 우리 유럽인들에게는 깊은 신학적·윤리적·선교적 회개가 요구됩니다. 역사는 복음이 어떻게 영적인 말로 희석되며 그 본질을 잃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복음이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구체적이고 좋은 소식이 되지 못할 때, 그 소금은 이미 맛을 잃은 것입니다. 오티스 모스 목사님의 말씀처럼, “정의를 식탁 위에 올려져 있지 않을 때, 복음의 맛은 사라진다.

오늘날에도 소유하고 지배하려는 영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동서양에서 새로운 권력들이 등장했고, 그 영향력은 유럽 안에서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신앙을 교묘히 이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그리스도교주의(Christianisms)’,

Disclaimer: Official versions of all Documents are in English. The translation has been made using AI and human translator assistance, however, the emphasis is for general meaning only.



즉 희석되고 왜곡된 그리스도교를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민족적 소속감, 영광스러운 과거, 우월한 문화, 약속된 황금의 미래를 신성시하며, 사람들의 상실감과 소속 욕구를 자극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조장하며, ‘엘리트’, ‘이민자’, ‘유색인종’, ‘성소수자’, ‘여성 운동가’, ‘음모론자’ 등 ‘타자’를 적으로 규정합니다. 이처럼 소유와 지배는 그들의 정치적 힘이자 전략입니다.

지도자가 백성의 마음을 가장 잘 안다고 주장하며 사람들의 정신과 영혼을 소유합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신적 권위를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원하는 대로 벌을 내릴 권리를 주장합니다. 세상과 그 자원을 소유하려 하며, “드릴, 베이비, 드릴(Drill, baby, drill)”을 외칩니다. 가족의 정의, 성의 인정, 남성성의 본질까지 규정하며 인간 관계의 본질을 소유하려 합니다. 진리를 차지하려 하고, 마침내 ‘기독교 정체성’마저 소유하려 듭니다. —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입니다.

교회는 기독교 정체성에 주목하게 할 때, 누구보다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사익의 도구로 사용 될 때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소금과 빛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비소유성(dispossessiveness)”에 있기 때문입니다. 소금과 빛은 자신을 내어줄 때만 비로소 그 기능을 다합니다.

소금의 역할 안에는 ‘소유’도 ‘지배’도 없습니다. 오직 존재하며 나눔이 있을 뿐입니다. 기독교적 삶 또한 그러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내어주는 존재 방식으로 표지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주일 제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 삶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 어떤 소유권도, 그 어떤 이념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 육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형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를 소유하십니다. 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용기를 내어 저항하고, 증언하며,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